

I. 개 요

1. 일 시 : 2015. 12. 16. (11:30~14:00)
2. 장 소 : 서울 더플라자호텔 파인룸
3. 발표자 : Imad Fakhoury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 장관)
4. 참석자

김중관(동국대학교, 교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 소장)
김상진(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장용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철복(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무)
장세원(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소장)
황의갑(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엄익란(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송상현(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남옥정(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이권형(KIEP, 아중동팀장)
장윤희(KIEP, 아중동팀 연구원)

5. 제 목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Middle East in 2016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아랍의 봄 이후 MENA 지역은 인권, 의사결정, 거버넌스, 투명성, 교육, 여성 및 청소년, 실업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아랍의 봄뿐만 아니라 난민, 관광부문 타격, IS의 문제 등도 요르단을 비롯해 지역 내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오름.
 - 특히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실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튀니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임.
- 아랍의 봄 이후 상황을 국가별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음.
 - 공화국 형태의 튀니지, 이집트와 왕정 체제의 요르단, 모로코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의 국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이라크의 경우 정치적 이행 과정을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IS로부터 영토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IS 등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의 권력 공백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GCC 국가에서 아랍의 봄 영향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GCC 중

에서는 바레인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일 것이며 다른 GCC 국가들도 변화의 요구에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함.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5년 12월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함.

□ 한편 장기 저유가 사태는 MENA 지역 내 많은 국가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산유국인 GCC 국가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축소, 산업다각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은 PPP 방식의 건설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행보를 주시해야 할 것이며 대이란 제재 해제는 유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GCC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셰일가스 붐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음.

- 고유가가 비산유국인 요르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나 너무 낮은 유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물가상승, 관광산업 타격, 난민 문제 등에 직면한 요르단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요르단은 수십 년간 위기에 잘 대

처하며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함.

- 난민 문제로 인한 군사 및 안보 비용의 증가가 지속적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요르단은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 시민 자격을 부여하였음.
- 또한 지역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유류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2015년에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함.
- 요르단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요르단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함.
 - o 요르단은 이라크,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며 군사 작전을 수행해 왔음.
- 요르단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및 PPP 개발 등의 기회가 있으며 지역 재건을 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KEPCO)이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사업을 수주한 바 있음.